

중국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 및 착용실태

김 순 영 · 추 호 정⁺ · 손 진 아 · 남 윤 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생활과학연구소 부교수⁺ ·
송의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조교수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생활과학연구소 교수

Culture Adaptive Attitudes and Donning Practices of Traditional Dress among Chi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Soon Young Kim · Ho Jung Choo⁺ · Jin Ah Son · Yun Ja Nam

Lecturer,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oongeui Women's College
Professor,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4. 5. 16, 심사(수정)일: 2014. 6. 13, 게재확정일: 2014. 7. 28)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culture adaptive attitudes and donning practices of traditional dress among Chi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Quant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on Korea-Chinese multicultural families. Participants were 291 married women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t-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Hanbok* acceptance attitudes and *Qipao* transmission attitudes. The level of *Qipao* transmission attitudes was higher than *Hanbok* acceptance attitudes especially in the part of knowledge. Han Chinese showed stronger *Qipao* transmission attitudes than Korean Chinese. Immigrants without Korean nationality had stronger *Qipao* transmission attitudes. Higher education group and higher income group showed higher level both on *Hanbok* acceptance attitudes and *Qipao* transmission attitudes. Second, more than 50% of Chi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wore *Hanbok* once or twice per a year. On the other hand, only 24% of them wore *Qipao*. This result shows that there exists a gap in the *Qipao* transmission attitudes and donning practices. 44% of women wore both *Hanbok* and *Qipao* in their own wedding ceremony, 32% wore only *Hanbok*, and 19% wore only *Qipao*. 64% of women had an experience of wearing *Hanbok* on special days such as traditional holidays or family affairs, whereas only 29% had worn *Qipao*.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다문화생활교육센터(Multicultural Human Ecology Center (MHEC))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Ho Jung Choo, e-mail: chooho@snu.ac.kr

Key words: Chinese marriage immigrant women(중국 결혼이민 여성),
culture adaptive attitudes(문화적응태도), donning practices(착용 현황),
Hanbok acceptance attitudes(한복 수용태도),
Qipao transmission attitudes(치파오 전달태도)

I. 서론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한국으로 이주해 온 결혼이민 여성들이다. 결혼이민 여성은 한국인 남자와의 결혼을 계기로 익숙한 자신의 문화권을 벗어나 한국이라는 이질적인 문화권 속으로 삶의 거처를 완전히 옮겨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익숙한 모국의 문화와 낯선 이주국의 문화 사이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화적 충돌과 갈등을 겪게 된다.

지금까지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가 매우 많았지만 주로 심리학, 사회학, 아동가족학 분야의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문화적응 연구의 대상이 의류학인 경우는 그 수가 많지 않은데, 쇼핑성향에 따른 문화적응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¹⁾, 문화적응과 쇼핑행동의 관계 연구²⁾, 의복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³⁾, 문화적응수준에 따른 의복관여의 차이 연구⁴⁾ 등을 볼 수 있다. 문화적응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전통복식이 포함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전통복식은 한 사회의 의생활을 특징짓는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동시에 국가 또는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전통복식은 정체성의 유지 정도와 연관하여 개인 혹은 집단의 문화적응수준이나 문화적응유형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향후 문화적응 연구 영역에서 전통복식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는 그 출발선상에 있는 연구라 하겠다.

2013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정책과가 발표한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은 2013년도 상반기 기준 75만명 내외이며 여기에는 결혼이민자 및 인자·귀화자 28만명, 배우자 28만명, 자녀 19만명이 포함되어 있다.⁵⁾ 다문화가족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만명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⁶⁾ 현재 다문화가족 인구 전체 한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로 100명 가운데 1~2명이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므로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다문화인구 동태 통계에 의하면 출신국적별 다문화 혼인 조사 결과 아내의 출신국적이 중국인 경우는 2012년 다문화 혼인의 2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베트남(23.2%), 필리핀(7.8%), 일본(4.5%)이 따르고 있다.⁷⁾ 이와 같이 현재 한국사회에는 많은 수의 다문화가족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중국출신 여성들이 혼인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가장 많은 편이나 이들의 의생활에 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행해진 다문화가정 의생활에 대한 연구로는 다문화가정 여성과 자녀들의 계절별 착의 습관과 의복구매실태를 살펴본 이윤정⁸⁾의 연구와 다문화가정의 섬유 선호도를 조사한 최인려⁹⁾의 연구 등이 있다. 이들은 다문화가정 의생활을 고찰한 소수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전통복식생활을 연구에서 함께 다루고 있지는 않다. 다문화가정 의생활 연구 가운데 전통복식을 포함한 경우는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의복행동과 전통복식태도를 연구한 손진아 외¹⁰⁾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전통복식은 의생활의 한 부분이고 문화정체성의 구성 요소이며 문화적응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문화적응 연구와 다문화가정 의생활 연구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해왔다. 이에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문화적응 연구와 다문화가정 의생활 연구에서 전통복식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먼저 중국 결혼이민 여성으로 삼았다. 중국 결혼이민 여성들이 한국에서의 문화적응을 위하여 전통복식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전통복식이

문화적응에 관여하는 요소임을 밝히고자 한다. 두 번째 목적은 중국 결혼이민 여성들이 실제 의생활에서 전통복식을 얼마나 착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전통복식 태도와 착용 행동의 간극을 이해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하여 필요한 부분에서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생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결혼이민 여성의 생활문화적응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국 다문화가정과 중국 문화

2013년도 상반기 기준 국내의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는 약 28만명인데, 여기에는 결혼이민자 15만명, 혼인귀화자 8만명,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5만명이 포함되어 있다.¹¹⁾ 2011년 10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2012년부터 기타사유(인지·귀화) 국적취득자도 다문화가족에 포함하게 되면서 다문화가족의 범주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¹²⁾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인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을 살펴보면 그 수가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¹³⁾ 2007년에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59,902명, 기타 중국인 33,577명이던 수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한국계 중국인 100,524명, 기타 중국인 67,944명으로 6년 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¹⁴⁾ 2013년도 전체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60%이다. 그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의 수가 기타 중국인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이다.

이와 같이 국내 다문화가정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은 한국이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이웃 나라이므로 한국으로의 이주 이후 생활 적응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될 수도 있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유교 문화권, 한자 문화권에 속하기에 한국으로 이주해 온 중국인들은 다른 이주민보다 빠르게 적응하는 편이긴 하다.¹⁵⁾ 그러나 중국인들 역시 적지 않은 갈등요소를 안고 있는 문화적응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서로 다른 정치 체제에서 오랜 세월 동안의 단절되었

던 상황은 세세한 부분에서 많은 문화적 차이와 오해를 발생시키고 있다.¹⁶⁾ 문화적 차이의 일례로서, 일반 가정 아버지와 중국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비교한 장소정¹⁷⁾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들은 일반 가정에 비해 중국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이러한 인식은 모국인 중국의 양육문화와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에서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중국인들의 일반적 문화 특성과 관련하여 흔히 '대국기질'을 말하곤 한다. 중국인들의 내면에는 자국의 문화에 대한 우월감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¹⁸⁾ 대국기질, 중화사상과 같이 자문화에 대한 우월 의식은 한국으로 이주해 온 중국인 이민자들의 문화적응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화에 대한 우월 의식은 전통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도 반영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건국 이후 오랜 시간동안 '반전통주의'를 지향해 왔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전통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¹⁹⁾ 21세기에 들어선 이후에는 전통에 대한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으며 다방면에 걸쳐 전통에 대한 재평가와 전통회귀양상이 나타나고 있다.²⁰⁾ 한국 사회로 이주해 온 중국인의 수가 근래 수년간 매우 증가한 추세로 미루어 볼 때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통을 부각시키는 시기에 한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원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모국에 대한 애착은 본국에 거주할 때보다 타국으로 이주했을 때 심리적으로 더욱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시대적 정황이나 심리적 상황으로 볼 때 근래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의 자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은 매우 각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전통복식과 다문화

전통복식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과거로부터 착용해 온 의복과 장신구 일체를 말한다. 이창식²¹⁾은 관습과 전통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관습

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사회규범을 가리키는 개념이며 전통은 관습 중에서 역사성을 띠면서 현대 생활에 의미와 효용성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전통의 중요한 세 가지 속성인 '역사성', '현재성', '미래 지속성'을 모두 강조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의 속성에 의거하여 전통복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해보면, 전통복식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며 현대 생활에서 일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고 보존의 의지가 부여된 의복과 장신구 일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 집단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총합으로 정의된다.²²⁾ 다문화는 협의로는 다양한 국적과 인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광의로는 다양한 생활양식과 가치체계 등이 하나의 국가라는 공동체 하에 함께 존재함을 의미한다.²³⁾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한국 사회는 인종이나 민족의 인식에 있어서 단일 민족의 신화를 보편 관념으로 지녀왔다.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전 사회적으로 부상하고 제도적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2000년대 이후 무렵, 지극히 근래의 일이다.

초기에 마련된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이주민 정책과 다문화 교육은 이주민을 사회통합의 '주체'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통합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으며, 따라서 쌍방향 소통 보다는 일방적 동화정책이 주를 이루는 경향이 있었다.²⁴⁾ 그러나 최근의 다문화 연구는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상호의존과 상호변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서로 다른 인종, 언어, 종교, 문화, 전통, 관습에 영향을 받고 살아왔던 이주민과 기존 한국사회 구성원이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존중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로서 상호의존과 상호변화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²⁵⁾ 다양한 정체성의 유지와 존중이라는 다문화 사회의 가치는 곧 다양한 전통문화의 유지 및 존중과 직결된다. 왜냐하면 전통문화의 속성에 역사성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그 역사성은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틀이 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정체성의 유지와 존중 가치는 최근 들어

다양한 전통 문화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연구에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어문학 연구와 음악, 미술 등 예술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양민정²⁶⁾은 아시아의 대표적 명절인 설, 단오, 추석 등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베트남 3국의 세시풍속 내용과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각 국의 세시풍속을 활용한 다문화가정의 상호문화이해를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지현²⁷⁾은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인도의 민요를 중심으로 다문화 음악교육 교재를 개발했으며, 이은지²⁸⁾는 한국과 아시아 각 국의 민요와 축제를 비교하여 음악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였는데 여기에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이 포함되었다. 인성희²⁹⁾는 특히 중국 민요를 중심으로 음악교육 지도안을 개발하기도 했다. 하송아³⁰⁾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의 가면 종류와 특성을 분석하여 다문화 미술교육 수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였다. 식생활을 이용한 다문화 교육 안도 개발되었다. 백명주³¹⁾는 베트남, 태국, 일본, 중국의 대표적 요리를 이용하여 식생활 다문화 교육 지도안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아시아의 전통문화와 예술, 생활문화를 다문화 교육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흐름과 함께 전통복식 역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 전통복식 교육은 다양한 정체성의 유지와 존중이라는 다문화 사회의 가치에 기여할 수 있고, 다문화 한국을 주류 한국문화의 토대 위에 다양성이 공존하는 작은 아시아로 만드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전통복식은 어떤 국가, 혹은 민족 공동체가 오랜 시간 착용해 온 옷과 장신구 일체이다. 이러한 전통복식을 아름답게 여기고 특별한 날에 입고 즐기는 생활은 전통문화의 일부가면서 동시에 현대 생활의 중요한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전통복식 가운데 대표적 품목인 치파오는 원래 만주족의 옷이었으나 청 왕조의 붕괴 이후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 여성복이 되었다. 치파오는 하이 네크라인에 스탠딩 칼라가 달렸으며 앞여밈이 있고 몸에 꼭 맞는 외관이 특징이다. 현재 중국 여성들은 치파오를 흔레

복 가운데 하나로 착용하고 있다. 한복은 한국의 전통복식으로 여성 한복은 짧은 저고리와 긴 치마로 구성된다. 현재 한국 여성들은 한복을 혼례와 상례 등에서 의례복으로 입거나 설과 추석과 같은 특별한 날에 명절복으로 입고 있다. 이와 같이 치파오와 한복은 중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복식임과 동시에 중요한 생활문화요소 가운데 하나이므로 중국 출신 결혼이민 여성들은 모국의 전통 복식인 치파오와 이주국의 전통복식인 한복을 매개체로 하여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구현하거나 이주국의 문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

본 연구는 베리(J. W. Berry)의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을 보다 단순화하여 두 가지 문화적응태도로 재구성한 장온정³²⁾의 연구 모델을 참조하여 진행되었다.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문화접촉(culture contact)이 발생하고, 문화접촉 상황에서의 적응 문제에 대한 관심은 문화적응(acculturation)의 개념을 탄생시켰다.³³⁾ 베리는 사람들의 문화간 이동과 접촉이 발생할 때 두 개의 차원 즉, 모국의 문화적 정체감 및 특성을 유지하는데 가치를 두는지의 여부와 새로운 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측정하여 문화적응의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³⁴⁾ 첫째,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 통합(integration), 둘째,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만을 받아들이면 동화(assimilation), 셋째,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리(separation), 넷째,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문화와도 접촉을 하지 못하면 주변화(marginalisation)가 된다.³⁵⁾ 베리의 이론은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를 지니는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문화적응을 할 때 이 네 가지 전략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맥락과 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³⁶⁾

최근 베리의 네 가지 문화적응유형을 보다 단순화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³⁷⁾ 베리의 두 개 차원을 조금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문화적응은 본질적으로 '원문화의 정체성'과 '새로운 문화의 참여'라는 두 차원이 결합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⁸⁾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는 '원문화를 유지하는 정도'와 '이주문화를 습득하는 정도'의 두 가지 차원에서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 하는 상대적 선호와 주류 한국사회 집단에 접촉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상대적 선호 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³⁹⁾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 역할수행을 하므로 한국사회 참여를 포기하며 자문화만을 유지하는 분리 유형이나 자국의 문화 유지와 더불어 한국의 문화 수용도 하지 못하는 주변화 유형의 문화적응태도를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다.⁴⁰⁾ 따라서 의생활 문화적응에서도 기본적으로 동화나 통합 유형의 문화적응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적응태도를 한국남성의 결혼적응 연구의 변수로 사용한 장온정⁴¹⁾에 의하면, 문화적응태도란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분간에 서로의 문화적 환경에 잘 익숙해지기 위해 수행하거나 노력하는 태도로 정의된다. 장온정⁴²⁾은 문화적응태도를 '다문화 수용태도'와 '자문화 전달태도'로 구분하였는데, 다문화수용태도는 한국남편이 외국인 아내 국가의 문화를 아는 정도 및 받아들이는 태도로 정의하였고, 자문화전달태도는 한국남편이 한국의 문화를 외국인 아내에게 알려주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권복순, 임보름⁴³⁾의 연구에서도 문화적응태도의 개념이 이용되었다. 한국사회의 결혼이주 여성들은 한국문화로의 순응을 요구하는 입장이 강한 현실 속에서 자문화 유지와 한국문화 수용이라는 두 가지 문화적응과정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⁴⁴⁾ 권복순, 임보름은 결혼이주 여성들의 문화적응태도가 '한국문화 수용태도'와 '자문화 전달태도'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한국문화수용태도는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 알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자문화 전달태도는 남편에게 자신의 문화를 알려서 적응하게 하는 노력 및 태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⁴⁵⁾ 이들은 대구경북 지역

결혼 이주 여성의 자문화 전달태도와 한국문화 수용태도를 분석하였는데 자문화 전달태도가 한국문화 수용태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자문화 전달태도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태도의 두 방향성을 나타내는 자문화 전달태도와 이주문화 수용태도를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에 적용하여 모국 전통복식 전달태도와 이주국 전통복식 수용태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의 문화적응태도 개념을 전통복식에 적용하여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란 상이한 전통복식문화를 가진 부부, 혹은 가족 상호간에 서로의 전통복식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로 정의된다. 본 연구의 대상이 중국 결혼이민 여성인 만큼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는 '한복 수용태도'와 '치파오 전달태도'의 두 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한복 수용태도는 결혼이민여성이 한국 전통복식인 한복에 대해 알고자 하는 태도이며, 치파오 전달태도는 타인(특히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중국 전통복식인 치파오를 알려서 적응하게 하려는 노력 및 태도로 정의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의 수준을 밝히고,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의 차이를 살펴본다.

둘째, 중국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착용실태를 파악하고,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전통복식 착용실태의 차이를 살펴본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중국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 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중국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 전통복식 착용현황, 인구 통계학적 특성 등으로 구성되었

다.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장은정⁴⁶⁾, 김순영 외⁴⁷⁾, 홍수남⁴⁸⁾의 연구를 참조하여 지식, 심미성, 외모관심의 3개 개념으로 분류했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지식 2문항, 심미성 2문항, 외모관심 2문항 총 6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결혼식, 명절 및 가족행사시 전통복식 착용경험은 가부형(입었다, 안 입었다)으로, 연간 전통복식 착용현황은 선다형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연령, 국적, 학력, 직업, 경제적 수준, 거주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선다형 및 자유기술형으로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출신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3년 4월에 설문지가 개발되었으며, 2013년 5월에 예비조사 및 설문지 수정이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2013년 7월~8월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편의 표집과 스노우볼 표집법이 이용되었다. 설문조사는 조사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수행되었다. 설문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 출신 결혼이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조사지침서를 개발토록 하고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의 실시여부를 확인하였다. 조사요원들은 중국출신 결혼이민여성을 직접 대면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법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수거된 309부(조선족 158명, 한족 151명)의 설문지 가운데 최종 분석시 반복 측정된 신뢰성 측정 문항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보인 1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조선족 148명(50.9%), 한족 143명(49.1%)의 설문지 총 291부가 통계처리에 이용되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53명(18.2%), 30대가 196명(67.4%), 40대 이상이 42명(14.4%)으로 30대 부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국적은 한국 국적 보유자가 173명(59.5%), 중국 및 기타 국적 보유자가 118명(40.5%)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부인의 수가 더 많았다. 학력은 중졸 이하가 41명(14.1%), 고졸 176

명(60.5%), 대졸 이상 74명(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업 주부가 140명(48.1%), 직업을 가진 여성이 151명(51.9%)이었다. 직업을 가진 여성 가운데 73명(25.1%)은 파트타임, 78명(26.8%)은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월평균 가족 총수입은 300~399만원이 112명(38.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200~299만원 92명(31.6%), 400~499만원 56명(19.2%)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5년 이상~10년 미만이 189명(64.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년 미만 55명(18.9%), 10년 이상~15년 미만이 39명(13.4%)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 대응표본 t-검정, 독립표본 t-검정, 상관관계분석, 빈도분석 등의 통계기법이 이용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

1)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를 구성하는 변수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한복 수용태도 및 치파오 전달태도 각각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 <표 2>와 같다.

한복 수용태도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GFI=.990, AGFI=.965, CFI=.995, RMR=.011, RMSEA=.042, $\chi^2=9.119$ ($df=6$, $p=0.167$), Normed

<표 1> 한복 수용태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개념	측정문항	요인부하량	신뢰도 (Cronbach's α)	평균
지식	나는 한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670	.720	3.026
	나는 한복을 배울 기회가 있다면 배우고 싶다.	.841		
심미성	나는 한복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815	.777	3.620
	나는 한복이 고상하고 품위 있어 보인다.	.781		
외모관심	나는 한복이 착용자의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843	.749	3.424
	나는 한복이 착용자의 몸매를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711		

GFI=.990, AGFI=.965, CFI=.995, RMR=.011, RMSEA=.042, $\chi^2=9.119$ ($df=6$, $p=0.167$), Normed $\chi^2=1.520$

<표 2> 치파오 전달태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개념	측정문항	요인부하량	신뢰도 (Cronbach's α)	평균
지식	나는 타인에게 치파오가 중국의 전통복이라는 사실을 잘 알려 준다.	.737	.679	3.560
	나는 타인에게 치파오를 가르쳐 줄 기회가 있다면 가르쳐 주고 싶다.	.697		
심미성	나는 타인에게 치파오가 아름다운 옷임을 이야기 해 준다.	.676	.663	3.570
	나는 타인에게 치파오가 고상하고 품위 있는 옷임을 이야기 해 준다.	.737		
외모관심	나는 타인에게 치파오가 착용자의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 수 있음을 잘 알려 준다.	.687	.641	3.491
	나는 타인에게 치파오가 착용자의 몸매를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 수 있음을 잘 알려 준다.	.693		

GFI=.988, AGFI=.958, CFI=.990, RMR=.014, RMSEA=.054, $\chi^2=11.125$ ($df=6$, $p=0.085$), Normed $\chi^2=1.854$

$\chi^2=1.520$ 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부하량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측정 변수의 요인부하량은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하위 개념들의 Cronbach's α 를 분석한 결과 지식은 0.720, 심미성은 0.777, 외모관심은 0.749로 신뢰할 만한 내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파오 전달태도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GFI=.988, AGFI=.958, CFI=.990, RMR=.014, RMSEA=.054, $\chi^2=11.125$ ($df=6$, $p=0.085$), Normed $\chi^2=1.854$ 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부하량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측정 변수의 요인부하량은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하위 개념들의 Cronbach's α 를 분석한 결과 지식은 0.679, 심미성은 0.663, 외모관심은 0.641로 나타나 수용할 만한 내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 수준

한복 수용태도와 치파오 전달태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한복 수용태도와 치파오 전달태도는 유의확률 0.001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r=0.443$,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복 수용태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치파오 전달태도도 높았다. 이는 자문화에 대한 관심이 큰 사람일수록 타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중국 결혼이주 여성의 한복 수용태도와 치파오 전달태도 수준을 비교해 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복 수용태도(평균 3.357)에 비해 치파오 전달태도(평균 3.541)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 수용태도에 비해 치파오 전달태도가 더 높게 나온 결과는, 중국과 베트남 등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문화적응태도를 연구한 권복순, 임보름⁴⁹⁾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서 그들의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 수용태도가 자문화 전달태도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은 이주한 나라에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 문화적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가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한복 수용태도에 비해 치파오 전달태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결혼이민 여성들이 전통복식을 보다 근원적인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중국인들의 자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를 구성하는 하위 개념들을 비교해 보면 <표 3>에서와 같이 지식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t=-10.311$, $p=.000$). 지식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복지식 수용태도(평균 3.026)에 비해 치파오지식 전달태도(평균 3.560)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성과 외모관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심미성 $p=.266$, 외모관심 $p=.125$). 따라서 한복 수용태도와 치파오 전달태도의 차이를 견인하는 주요 구성 개념은 지식과 관련된 요소들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결혼이민 여성들이 이주국의 전통복식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

<표 3>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 수준 비교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		한복		치파오		평균차이 (t-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357	0.546	3.541	0.562	-5.358***
하위개념	지식	3.026	0.743	3.560	0.653	-10.311***
	심미성	3.620	0.709	3.570	0.626	1.115
	외모관심	3.424	0.681	3.491	0.648	-1.539

*** $p<.001$ (측정: 5점 리커트 척도)

고 싶은 욕구보다는 자국의 전통복식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의 장에서 결혼이민 여성들 스스로 자국의 전통복식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 차이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가 인구통계적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유의확률 5%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표 4>에 정리하였다.

민족에 따른 문화적응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한복 수용태도는 조선족과 한족,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치파오 전달태도는 t값 -3.292로 유의확률 0.01수준($p = .001$)에서 두 민족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조선족은 3.436, 한족은 3.649로 한족이 조선족보다 치파오 전달태도 점수가 더 높았다. 한족이 조선족에 비해 치파오 전달태도 점수가 더 높은 것은 중국 전통복식인 치파오에 대해서 한족이 조선족보다 더욱 강하게 자문화로 인식한 결과로 생각된다. 반면 한복 수용태도에 있어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은 한족과 조선족이 한복을 타문화로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 수준이 유사함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한국국적 취득여부에 따른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한복 수용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치

파오 전달태도에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치파오 전달태도는 유의수준 0.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t = -5.589, p = .000$), 한국국적 취득자에 비해 미취득자의 평균이 높았다(한국국적 취득자 3.396<미취득자 3.753). 치파오 전달태도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적은 일반적인 한국문화 수용태도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중요한 변인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정천석⁵⁰⁾은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한국사회의 문화적응에 있어 부적응 유형을 띠었다고 했고 권복순, 임보름⁵¹⁾은 국적취득은 한국문화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상기의 선행 연구 결과와는 달리 국적이 한복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한국문화 수용태도의 구성 개념이 언어, 음식, 생활방식, 풍습, 예절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일상적 적응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데 반해, 한복은 매일의 일상 생활적응에 관계되는 요소이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상징적인 문화적응에 관계되는 요소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권복순, 임보름⁵²⁾의 연구 결과에서 국적은 일반적인 자문화 전달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적 취득여부에 따라 치파오 전달태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초기 이주단계에 있는 부인들의 자문화 전달태도가 더 적극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통복식과 같이 구체적 외형을 갖춘 물질적 문화 요소들은 초기 이주단계의 여성들이 자문화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교육정도와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의 상관관계를

<표 4>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 차이

인구통계적 특성	한복 수용태도	치파오 전달태도
민족		조선족 < 한족
한국국적 취득여부		국적취득 < 국적미취득
교육정도	정적상관	정적상관
월평균소득	정적상관	정적상관

살펴본 결과,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한복 수용태도($r=0.202, p=.001$)와 치파오 전달태도($r=0.370, p=.000$)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소득과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한복 수용태도($r=0.154, p=.009$)와 치파오 전달태도($r=0.377, p=.000$)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권복순, 임보름⁵³⁾의 연구에서 교육정도와 소득수준이 일반적인 한국문화 수용태도 및 자문화 전달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가 일반적 문화적응태도와는 달리 교육정도 및 소득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타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 및 자문화를 전달하고자 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것이 특히 전통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에는 교육 정도가 높고 생활이 안정된 집단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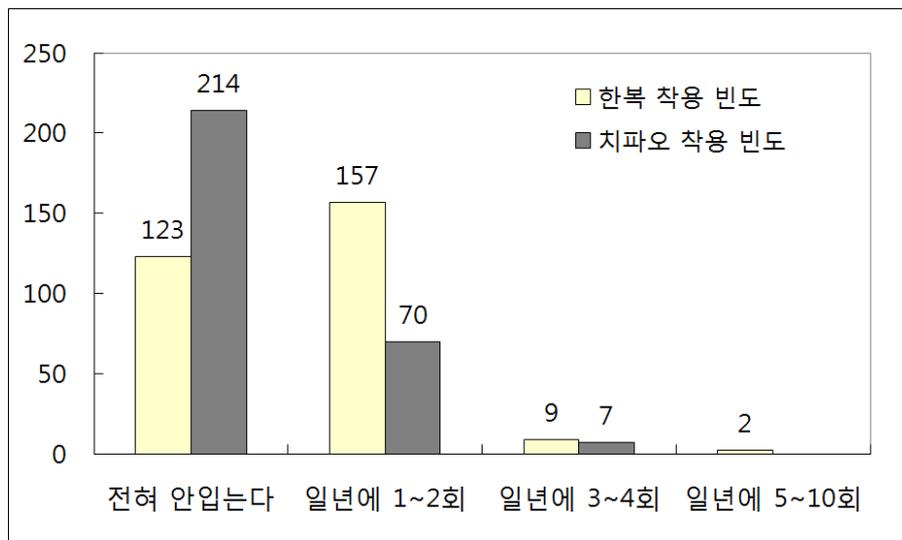
2. 전통복식 착용 현황

1) 한복과 치파오의 착용 실태

연 평균 전통복식 착용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그

림 1>과 같다. 한복의 경우 일 년에 1~2회 착용한다는 응답자가 157명(5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123명(42.3%)으로 나타났다. 일 년에 3~4회 착용한다는 응답자가 9명(3.1%), 일 년에 5~10회 착용한다는 응답자가 2명(0.7%)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한복을 전혀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더라도 연간 1~2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거의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한국인 가정에서의 의생활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치파오의 경우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214명(7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 년에 1~2회 착용한다는 응답자가 70명(24.1%)으로 나타났다. 일 년에 3~4회 착용한다는 응답자가 7명(2.4%), 일 년에 5~10회 착용한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한복과 비교해 볼 때 치파오의 경우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서 한복보다도 더 치파오를 착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에 있어서 한복 수용태도보다 치파오 전달태도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던 결과와 대조적인 것이



<그림 1> 한복 및 치파오 착용 빈도

〈표 5〉 상황에 따른 한복과 치파오 착용 경험

단위: 빈도(%)

착용 상황	착용 여부	한복	치파오
본인 결혼식	착용	223(76.6)	183(62.9)
	미착용	68(23.4)	108(37.1)
명절 및 가족행사	착용	187(64.3)	84(28.9)
	미착용	104(35.7)	207(71.7)
합계		291(100.0)	291(100.0)

다. 자국의 전통복식인 치파오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생활에서는 실제로 치파오를 착용할 기회나 경험이 매우 제한적임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전통복식은 사회 문화적 적응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결혼이민 여성들의 의생활에서 한복의 경우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 년에 1~2회라도 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반해, 자국의 전통복식의 경우에는 입을 볼 기회조차 거의 없다는 사실은 현재 한국의 다문화 사회가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가치 존중과 다양한 문화 공존에 이르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상황에 따른 한복과 치파오 착용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정리된 바와 같다. 본인 결혼식에서의 전통복식 착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 본인 결혼식에서 한복을 착용한 사람은 223명(76.6%)으로 착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본인 결혼식에서 치파오를 착용한 사람은 183명(62.9%)으로 역시 착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많았다. 본인 결혼식에서 모국과 이주국의 전통복식인 한복과 치파오를 모두 착용한 경우는 129명(44.3%)이었다. 한복만 착용한 경우

는 94명(32.3%)으로 치파오만 착용한 경우 54명(18.6%) 보다 훨씬 많았다.

명절 및 가족행사에서의 전통복식 착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 명절 및 가족행사에서 한복을 착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87명(64.3%)으로 역시 착용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인 결혼식에서 착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 수가 적었다. 명절 및 가족행사에서 치파오를 착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4명(28.9%)으로 나타나 한복에 비해 명절 및 가족 행사에서 치파오를 착용한 경험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명절 및 가족 행사에서 치파오보다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하여 한국의 전통복식인 한복을 한국 가족내 동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인 결혼식과 명절 및 가족행사에서 치파오보다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앞서 분석된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 수준과 대조적인 결과이다. 즉 치파오 전달태도가 한복 수용태도보다 높았으나 실제의 착용 경험에서는 한복을 더 많이 입는 것으로 드러나 태도와 행동간 괴리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혼 이민 여성들의 모국 전통복식

〈표 6〉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전통복식 착용빈도 차이

인구통계적 특성	한복 착용빈도	치파오 착용빈도
출생연도		부적상관
한국국적 취득여부	국적취득 > 국적미취득	
월평균소득	부적상관	
한국거주기간	부적상관	

착용 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착용 실태 차이

전통복식 착용정도가 인구통계적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통복식의 착용 정도는 <표 6>과 같이 한국국적 취득여부, 거주기간, 경제적 수준, 연령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적 취득여부에 따라서 한복 착용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미취득자에 비해 한복을 더 자주 착용하고 있었다($t=4.304, p=.000$). 거주기간과 한복 착용빈도에도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복 착용횟수가 더 많았는데($r=-0.198, p=.001$), 이는 신혼의 부인이 명절이나 가족행사에서 한복을 착용하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소득과 한복 착용빈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한복 착용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0.224, p=.000$). 연령과 치파오 착용빈도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연도가 높을수록, 즉 연령대가 낮은 사람들이 치파오를 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0.121, p=.039$).

V. 결론

본 연구는 중국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의 수준을 밝히고 전통복식 착용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전통복식이 문화적응에 관여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중국 결혼이민 여성의 생활문화적응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한복 수용태도와 치파오 전달태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 수용태도에 비해 치파오 전달태도가 약간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한복 수용태도와 치파오 전달태도의 차이를 견인하는 주요 구성개념은 지식과 관련된 요소들이었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한국이 조선족보다 치파오 전달태도가 높았으며,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초기 이주 집단의 치파오 전달태도가 더 높았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한복 수용태도와 치파오 전달태도 모두 높게 나타나 교육정도가 높고 생활이 안정된 집단일수록 타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 및 자문화를 전달하고자 하는 태도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중국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착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복의 경우 일 년에 1~2회 착용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치파오의 경우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자국의 전통복식인 치파오를 전달하고자 하는 태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착용 행동에서는 치파오를 착용할 기회나 경험이 매우 제한적임을 드러내었다. 상황에 따른 한복과 치파오 착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 본인 결혼식에서는 한복과 치파오를 모두 착용한 경우(44.3%)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복만 착용한 경우(32.3%), 치파오만 착용한 경우(18.6%) 순으로 나타났다. 명절 및 가족행사에서 한복을 착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64.3%)이 치파오를 착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28.9%)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한복 수용태도에 비해 치파오 전달태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중국 결혼이민 여성들이 전통복식을 보다 근원적인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중국 결혼이민 여성의 경우 이주국의 전통복식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싶은 욕구보다는 자국의 전통복식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강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의 장에서 결혼이민 여성들 스스로 자국의 전통복식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결혼이민 여성들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 결혼이민 여성들은 명절 및 가족 행사에서 치파오보다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하여 한국의 전통복식인 한복을 한국 가족내 동화의 수단으로 활

용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차
과오를 전달하고 싶은 강한 욕구와 상반되는 결과로
서 태도와 행동간 괴리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혼이민 여성들의 모국 전통복식 착용행동에 대해
한국사회와 다문화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포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 및 착용행동에 대한 이해가
결혼이민 여성의 생활적응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전통복식이라는 문화
적 도구가 결혼이민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효율적 수단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한복
에 대한 수용을 강요하기보다는 자국의 전통복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 한국사
회가 수용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결혼이민 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Shim, S. & Chen, Y. Q. (1996), Acculturation characteristics and apparel shopping orientations: Chinese students and spous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siding in the Southwes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4(3), pp. 204-215.
- 2) 이윤정, 이재일 (2004), 이차원적 문화적응이론을 토대로 한 한국계 미국인 소비자들의 패션 및 쇼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12), pp. 1545-1553.
- 3) Gbadamosi, A. (2012), Acculturation: An exploratory study of clothing consumption among Black African women in London,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16(1), pp. 5-20.
- 4) Youn, S. & Lee, K. (2012), Acculturation, cultural orientation, and clothing involve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6(6), pp. 641-652.
- 5) 여성가족부 편 (2013),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p. 1.
- 6) *Ibid.*, p. 1.
- 7) 통계청 편 (2012), *다문화인구동태통계*, p. 11.
- 8) 이윤정 (2010), 다문화가정 여성의 의생활 착의습관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3), pp. 395-410.
- 9) 최인려 (2011), 다문화가정의 의복 실태와 섬유 선호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9(4), pp. 863-875.
- 10) 손진아, 남윤자, 권준희 (2013), 베트남 다문화가정 의 생활 실태조사 - 의복행동과 전통복식 태도를 중심으로, *복식*, 63(6), pp. 127-139.
- 11) 여성가족부 편, *op. cit.*, p. 1.
- 12) *Ibid.*, p. 1.
- 13) *Ibid.*, p. 1.
- 14) *Ibid.*, p. 2.
- 15) 한종완 (2011), 중국이주민 문화집념 양상 연구 - 광주, 전남지역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중국과 중국학*, 14, pp. 65-108.
- 16) *Ibid.*, pp. 75-76.
- 17) 장소정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일반가정과 중국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에 대한 어머니 인식 비교,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65.
- 18) 한종완, *op. cit.*, pp. 75-76.
- 19) 이육연 (2004), 개혁 개방 이후 전통문화의 재평가와 변용 - 전통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하여, *중국현대문학*, 31, pp. 1-28.
- 20) *Ibid.*, p. 7.
- 21) 이창식 (2006),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서울: 역락, pp. 14-15.
- 22) 배영동 (2007), 물질문화의 개념 수정과 연구 전망 - 민속학의 영역과 방법 확장을 생각하며, *한국민속학*, 46, p. 240.
- 23) 박진경 (2010), 한국 다문화정책의 특성과 발전방향 - 다문화정책 모형이론을 중심으로, *2010 한국정책학회 하계대회 및 국제학술회의 proceedings*, p. 178.
- 24) 한종완, *op. cit.*, p. 69.
- 25) *Ibid.*, p. 70.
- 26) 양민정 (2013), 세시풍속을 활용한 다문화가정의 상호문화이해 교육 방안 연구, *세계문화비교연구*, 44, pp. 85-137.
- 27) 김지현 (2012),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교재 연구 및 개발 -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인도 민요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8) 이은지 (2013), 다문화교육을 위한 아시아민요 지도방안 연구 - 한국, 아시아민요 주제별 비교를 통하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9) 인성희 (2013), 다문화교육을 위한 수업지도연구 - 중국민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0) 하송아 (2012), 다문화 환경의 중학교 미술수업을 위한 가면 만들기 수업 프로그램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1) 백명주 (2012), 식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문화교육안 개발 및 적용,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2) 장운정 (2007), 국제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3) 정진경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pp. 101-136.
- 34) *Ibid.*, p. 106.
- 35) *Ibid.*, p. 122.
- 36) *Ibid.*, p. 122.
- 37) 권복순, 임보름 (2013), 대구 경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의 영향요인 연구, *한국민족연구논집*, 53, pp. 130-151.

- 38) *Ibid.*, p. 134.
- 39) *Ibid.*, p. 134.
- 40) *Ibid.*, p. 134.
- 41) 장운정, *op. cit.*, p. 8.
- 42) *Ibid.*, p. 8.
- 43) 권복순, 임보름, *op. cit.*, pp. 130-151.
- 44) *Ibid.*, p. 135.
- 45) *Ibid.*, p. 135.
- 46) 장운정 *op. cit.*, p. 129.
- 47) 김순영 외 (2012),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전통복식과 종교복식에 대한 인식 및 착용현황, *복식*, 62(7), pp. 117-132.
- 48) 홍수남 (2013), 한국여성과 이주여성의 외모관심도와 신체만족도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 건국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p. 111.
- 49) 권복순, 임보름, *op. cit.*, p. 141.
- 50) 정친석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1), pp. 5-23.
- 51) 권복순, 임보름, *op. cit.*, p. 144.
- 52) *Ibid.*, pp. 142-143.
- 53) *Ibid.*, pp. 142-143.